

한국물리학회 대중강연

LHC-21세기 과학혁명을 꿈꾼다

- 시 간 : 2008년 10월 23일 (목) 18:30
- 장 소 : 김대중컨벤션센터 401호, 광주

강연1. 쿼크, 우주 그리고 LHC
최수용 교수 (성균관대)

강연2. 미니 블랙홀 이야기
박성찬 박사 (서울대)



주 최 : 한국물리학회, 장남대학교, 영남대학교연구센터, 교동과학원

강연 1. 쿼크, 우주 그리고 LHC 최수용 교수 (성균관대)

2008년 10월 23일(목) 저녁 8시에 CERN 연구소의 7년
간만에 가동될 LHC 실험장치 2대가 새로운 질량
척의 단계를 시작한다. CERN 연구소는 80년대에
약 2 천억달러의 엄청난 투자가 앞으로 진행됨으로 전
세계에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LHC 가속기 및 여러 실험 장치를 통하여 미니 블랙
홀, 초대칭 입자 등의 새로운 현상과 입자물리 현
상들이 온다. 새로운 현상들의 발견을 위하여 7년
후는 4년, 5년차 중요성에 따라, 실험적으로 얻을
수 있는 한계에 대하여 설명한다.

강연 2. 미니 블랙홀 이야기 박성찬 박사 (서울대)

7년 간만에 가동될 가속기 및 여러 실험장치 등
중 2대에 제1차 2008년 10월 23일(목) 시작한다.

물리현상들은 7년 가동될 실험을 통하여 미니 블랙홀
이 만들어지면 새로운 입자 발견 실험 가능할 수
있을 수 있다고 한다. 20년 뒤 실험들은 인간은 얼마나
20년 후의 물리학과 관련하여 보여질 수 있는 것인가?